

# 사우디의 저유는 금저유?



계 덕 남  
〈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처장 〉

## 예민한 석유시장

원유값이 춤을 추고 있다. 8월 들어서 영국산 브렌트유가 배럴당 32달러를 돌파함으로써 80년 Gulf전 이후 최고 시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10년만에 최고치를 보여 줌으로써 고유가 시대를 예고하는 신호로도 볼 수가 있다.

지금 막 IMF 관리체제를 벗어나 본격적인 궤도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 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경제는 고유가의 부담으로 어려움을 더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특히 세계 6대 석유 소비국인 우리는 하루 200만배럴 이상을 소비함으로써 그 어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에도 고유가로 인한 외채부담을 인식하고 경제성장률을 당초 8%에서 6%로 수정하는 한편, 경상수지 흑자 폭 역시 당초 120억달러에서 100억 달러로 수정하는 등 거시지표자세를 손보기까지 하였다.

이렇게 불 때에 최근 국내석유시장의 구조는 조그마한 충격에도 예민하게 변하는 불안한 수급구조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시장의 의미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서 균형을 찾아 끊임없이 움직이며 변화하는 장소이나, 오늘의 국제석유 시장은 시장을 형성하는 층이 얇아 특히 공급을 주도하고 있는 OPEC가 충분한 물량을 공급할 때와 그러하지 못할 때에 유가는 등락을 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의 석유시장은 몇 가지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하나가 타이트한 공급과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들 수 있다.

즉, 공급은 비OPEC의 생산여력이 낮는데 반하여 OPEC의 여력은 아직 200-300만b/d의 여유가 있다. 그리고 이 여유마저도 사우디, UAE 등 몇 개 국가 특히 사우디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조그마한 공급변수에도 유가는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투명한 석유시장을 들 수 있다. 정보통신의 발달과 자유로운 자본이동은 석유거래를 자유롭고 투명하게 변화시켰다.

옛날 국제석유자본의 기업가가 아라비아의 국왕을 만나 그럴듯한 선물과 뒷거래로 유전과 석유를 차지하여 많은 이익을 보는 이야기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석유도 선물과 현물시장이 보편화되어 아프리카 산유국의 쿠데타나 서구의 석유노조 파업이 곧바로 석유가격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셋째로는 미국의 수급상황이다. 미국이 하루 1,900만 배럴 상당을 소비하는 대 수요처이기 때문에 미국석유협회(API)가 발표하는 美 석유재고 수치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유가는 그에 따라 움직이고, 특히 겨울날씨가 추워진다는가 하절기 휴가철이 닥쳐 드라이빙 시즌이 시작

되면 상승하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생산자나 소비자의 공급과 수요상황이 변하거나 변할 것이 예측될 때에 유가는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 석유꼭지는 사우디로 ?

석유자원은 공급탄력성이 낮고 부존 지역이 편재되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상품학적 특성은 2-3 차에 걸친 석유파동에서 보듯이 항상 공급자적측면에서 인위적인 생산감축이나, 수출금지과 같은 조치로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지금에 와서도 OPEC의 생산조절이 유가변동을 초래하고 있음은 그 궤도를 같이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그 주역이 야마니(Yamani : 사우디 前 석유장관)에서 나이미(Naimi : 사우디 現 석유장관)로 바뀌었을 뿐이다.

현재 OPEC의 생산능력은 하루 약 3,100만 배럴로서 현재 생산량 2,800만b/d를 감안시 잉여생산여력은 약 300만배럴 정도이다. 그런데 이중에서 200만배럴이 사우디 여력임을 감안한다면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강력한 힘(생산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최근의 유가양등도 사우디의 추가증산 유보 때문에 비롯되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사우디는 당초 7월 중에 25만b/d 추가증산하고 8월 부터 다시 25만b/d를 추가증산함으로써 도합 50만b/d 상당 물량을 시장에 추가시켜 급등하는 유가를 안정화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8월 들어 25만b/d의 추가공급계획이 타산유국의 반대와 유가하락(8월초 배럴당 23~24달러대로 떨어졌음)으로 그 실행이 불투명해졌으며, 바로 이 점이 최근 유가양등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3월 열린 정기총회에서 OPEC는 170만b/d의 증산에 합의하고 추후 시장상황에 따라 6월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추가증산여부를 결정토록 하였다. 그러나, 6월 총회에서 사우디는 100만 증산을 주장하였고 이란 등은 50만b/d를 증산을 주장하여 양측은 팽팽한 거리를 두었다가 종래에는 70만b/d 증산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타협의 배경에는 소비국을 대변하는

미국의 증산압력이 크게 작용하였다. 이 결과, 일부 강경 OPEC 국가들은 사우디를 미국의 앞잡이로 몰아세우기도 하였다. 그들은 OPEC의 자주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우디는 지난 80년의 Gulf전 당시 미국의 군사력 때문에 이라크로부터 침략을 면하였고, 이러한 빛은 쿠웨이트, UAE 등도 마찬가지로 상황이었다. 이에 보답하듯이 사우디는 OPEC 총회의 결정과는 무관하게 50만b/d 독자증산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OPEC의 분열을 의미할 뿐 아니라 시장지배력은 생산여력을 얼마나 가지느냐 하는 공급력에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자원의 편재와 OPEC 생산력의 1/3을 차지하는 사우디와 같은 산유국은 절대적인 발언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 결과, 나머지 OPEC 회원국들의 경우 사우디와 같은 1~2개 주도국에 의하여 생산정책이나 유가정책이 크게 좌우되는 영향을 받게 된다.

만약 사우디가 계속하여 독자적 증산정책을 추구한다면 이란 등 나머지 9개국은 OPEC 해체를 감수하지 않는 한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시장판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이 점에서 현재 국제석유시장은 과연 사우디가 어떤 카드를 가지고 회원국을 설득하고 그들의 자존심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그리고 OPEC의 해체를 면하면서 독자적 석유정책을 펴 나갈 것인가에 그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 유가밴드(\$22~28/bbl)는 가능한가 ?

베네수엘라가 제창하는 유가의 완충폭(Band)는 최저 22달러에서 최고 28달러로서 OPEC 내부에서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소비국의 입장에서 보면 1년여 전에 10달러대인 것을 감안하면 2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쉽게 흡수하기 힘든 것이다.

미국의 고위관리의 표현대로 미국경제도 25달러를 넘는 유가는 국제수지의 악화와 인플레이 등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전문가들도 의견을 같이 하

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도 비록 유가밴드제에 공감을 표명하면서도 25달러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OPEC 내부에서도 28달러에 가까운 높은 유가수준을 선호하는 국가와 25달러대를 선호하는 국가그룹으로 나뉘어지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높은 쪽을 선호하는 국가들로는 이란, 베네수엘라, 알제리 등 매장량이 적고 노후화된 유전을 가진 국가군으로 빠른 자금회수와 높은 생산비를 보충하려는 기본전략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낮은 가격(25달러선)을 선호하는 국가는 사우디 등으로 풍부한 매장량과 낮은 생산 cost를 배경으로 현금회수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이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의 국가군보다 다소 느긋한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OPEC의 가격정책이 높은 쪽으로 갈 것이냐, 낮은 쪽으로 갈 것이냐 하는 문제는 국제유가가 25달러이하로 가느냐 아니면 28달러로 가느냐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시장지배력 기준으로 본다면 분명히 사우디가 그 해답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우디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인드는 높은 유가는 세계 경제를 퇴보시키고 이는 다시 석유수요를 저하시켜 오히려 OPEC에 해를 끼친다는 논리인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대체에너지의 등장을 가급적 늦게 하여 석유우위의 에너지 구조를 좀더 오래 가져가고 풍부한 석유매장량을 보다 길게 유지하려는 속셈이 깔려 있다. 이렇게 볼 때 OPEC의 평균가격은 25달러 내외에서 형성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다.

### 미국의 선택과 사우디의 선택

지금 미국은 공화당 부시후보와 민주당 고어후보간에 근소한 표차의 선거전이 전개되고 있다. 11월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이다. 양당의 쉐어는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친석유, 보수주의이고 민주당은 친노동자, 진보주의이다.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러닝메이트로 지명하였던 체니후보는 80년 Gulf전쟁시에 국방장관을 지냈고, 찬조

연사인 파우엘은 Gulf전시 합참의장으로 이라크를 굴복시킨 총사령탑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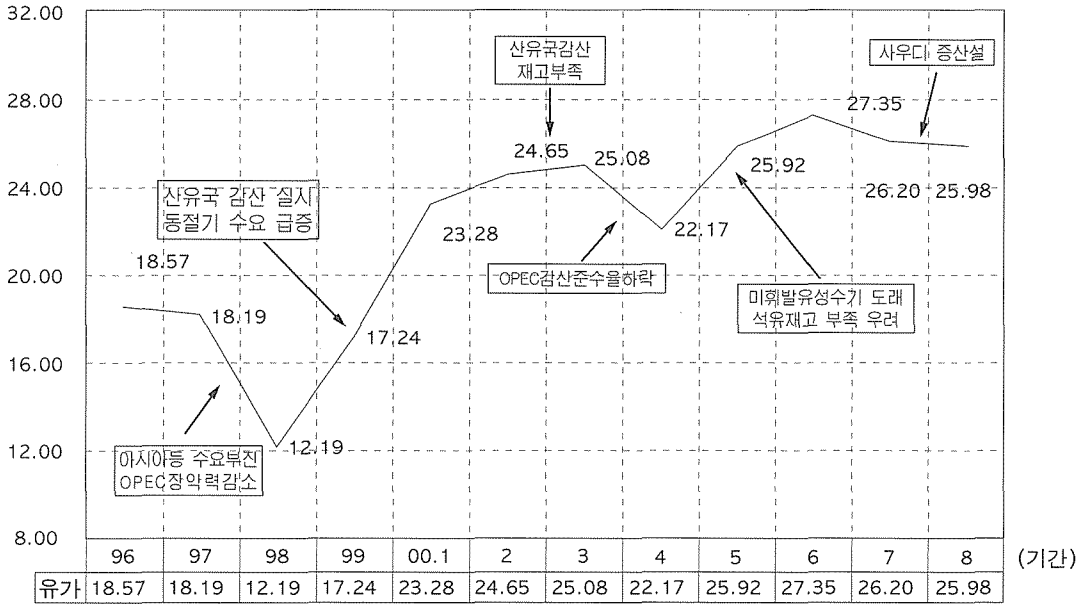
한편, 민주당측은 집권당의 프리미엄을 활용하여 리차드슨 에너지장관으로 하여금 사우디 등 중동을 순방케 함으로써 증산을 통해 저유가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U.N을 비롯한 정치외교무대를 심분 활용하고 있는 한편, 사우디 압둘라 황태자와 나이미 석유장관의 초청 외교 등의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고유가로 인한 자동차용 휘발유가격 상승으로 일반물가가 자극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집권당의 지지표가 이탈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강력한 보수색채와 석유산업보호정책이 강한 부시후보는 사우디의 안정정보장과 친석유산업정책을 표방하여 사우디를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도모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미국의 여당과 야당은 다같이 친사우디정책을 표방하고 있어 사우디로서는 양손에 떡을 쥐고 저울질하는 형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여당의 고어후보는 친환경론자로서 석유산업계에서는 다소 거리를 두는 인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국가안정보장국과 대강경 이라크 정책을 구사할 부시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이렇게 되면 역으로 사우디의 정치적 선택이 추가적으로 증산하느냐 아니면 다가오는 9월 10일 OPEC 정기총회에서 어떠한 태도를 보일 것이냐 하는 점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아닌가 생각된다.

사우디정부는 군사, 외교적으로 미국의 후원이 절실하고 이란, 이라크 등 강경 OPEC 국가들에 대응하는 위치를 고수하여 실질적인 OPEC 주도국으로 발돋움하려고 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는 설불리 그리고 노골적으로 여당과 야당의 한쪽을 지원하는 행동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만약 선거결과가 사우디 의사와 반대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후환(?)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분간 미국내 여론을 예의 관찰하면서 11월 선거에 임박하여 어떤 태도를 보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리고 동절기 수요가 11월에는 서서히 현

두바이 유가 추이



실화되기 때문에 지금의 수급상황으로는 유가의 강세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유가의 진로는 ?**

현재의 수급사정을 감안해 볼 때 석유수요가 증가하는 동절기 성수기 중 공급이 다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유가의 강세는 충분히 예상된다.

앞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요인을 더듬어 볼 때 향후 유가는 공급의 폭지를 쥐고 있는 사우디의 태도에 달려 있다. 그러나, 사우디로서는 과연 증산을 하여 저유가를 유도하여 고어후보를 유리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수수방관하여 야당후보인 부시를 유리하게 할 것인가 하는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그동안의 성향을 보아서 급격한 선택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아직 미국의 대선은 2~3개월이 남았고 양 후보의 지지도는 지금으로서는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 미국 역시 사우디의 정책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앞으로 계

속하여 유대를 강화하는 정책을 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향후 유가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하여는 공급조절력이 뛰어난 사우디의 태도에 따라 크게 움직일 전망이다. 그러나, 사우디로서도 성급한 행동을 하기보다는 지금의 26~27달러선(두바이 기준)을 관망하면서 고어와 부시의 카드를 비교하여 11월 대선까지 불투명한 태도를 이어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석유가격은 그 예측이 어렵기는 하나, 25달러에서 28달러 사이에서 강세를 보일 공산이 크다.

이렇게 고유가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현실에서 우리나라로서는 경제 안정에 어려움을 가증시키지 않는 국민적 소비절약과 더불어 석유자원의 자주개발이 한층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하겠다. 이제 국제석유시장은 사우디의 선택이 미국대통령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하는 정치적 상품으로 인식되어 우방의 도움 없이는 미국 대통령 되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다. ☹